

# 의사인력 전문화 및 질적 관리방안

1997년 6월 18일 의료개혁위원회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『의사인력 전문화 및 질적 관리방안』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.

## 1. 현황 및 문제점

### - 의사인력 종류별 역할 및 수급

-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는 일차의료 제공자의 양성 및 관리가 선결요건이나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전문의 양성에 치중되어 왔음.
- 국내의 의료관련 법규에 일차진료의에 관한 사항은 없음.
- 우리나라는 개원 전문의가 전공과는 상관없이 주로 일차진료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의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졸업 직후 단 1회의 국가시험을 통하여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졸업 직후 1회의 시험을 통하여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### - 전문의의 공급과잉

- 현행 졸업후 수련교육제도는 제도의 경직성과 관리제도의 미흡으로 전문의 과잉공급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어 있음.
- 대형종합병원의 증가는 수련전공의의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매년 의대 졸업생의 98%가 인턴과정에, 인턴수료자의 94%가 전공의 과정에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전문의가 과잉 생산되는 수련교육체계를 초래하였음.
- 현실적으로 일차진료 일선의 개원 전문의는 공급과잉이나 각급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의사인력인 전공의는 부족함.

우리나라는  
전문의 양성에만  
치중, 전문의가  
일차진료나  
타전문과목을  
진료하는 등  
전문의로서의  
본연의 역할을  
수행하고 있지  
못한 실정이다.

- 수련교육제도 관리의 비효율성
  -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각종 업무가 의료관련단체에 분산 위임되어 있어, 관리면에서의 효율성 저해와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.
  -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단위 수련병원별로 시행하는 표준화심사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, 수련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한 평가가 미흡함.
- 전문의제도 관리의 비효율성
  -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전문의제도는 탄력적 운영 및 효율성이 부족함.
  - 전문의 자격취득 후 전문의 자격재심사제도가 부재하여 변화하는 의료지식 및 의료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전문의의 평생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못함.

## 2. 정책건의

새로운 의학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의학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진료의와 전문의 등 의사인력 양성 및 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의사인력의 활용을 효율화함.

- 첫째, 일차진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일차진료의의 양성 및 유인방안을 마련함.
- 둘째, 일차진료의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의사국가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.
- 셋째,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의 수급계획 및 양성, 자격부여 및 사후관리 등을 관장하는 『전문의를관리기구』를 신설함.

## 1. 일차진료의제도의 도입

### 가. 일차진료의에 대한 정의

- 일차진료란 환자인 의료소비자가 자기관리 후에 첫 번째로 접하는 의학적 진료(first medical contact)로서, 현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보건소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통칭함.
- 일차진료의란 건강증진 및 유지, 질병예방, 건강상담, 환자교육, 급성 및 만성질환 진단, 치료 및 관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을 지칭하며 다음의 특성을 지님.
  - 환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첫 번째 접촉의사임.
  - 환자의 미분류된 건강문제 및 질병에 대한 명확한 상담 및 진료의 제공,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적절한 활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짐.

### 나. 일차진료의의 양성방안

- 일차진료의 양성을 위하여는 다음의 1~4안을 고려할 수 있음.

#### [제1안]

- 의과대학 졸업후 현행 의사면허를 득한 자 중에서 기존 전문의제도에 병행하여 2~3년 과정의 일차진료의제도를 도입함.
- 일차진료의제도의 교과내용, 수련내용, 자격인정 등을 기획·실천하기 위해 소비자·학계·정부로 구성된 가칭 『일차진료교육위원회』를 설립함.

#### [제2안]

- [제1안]의 제도에서 수련과정은 현 가정의학과 수련과정과 통합함.

일차진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일차진료의의 양성 및 유인방안을 마련, 일차진료의 도입에 따른 현행 의사국가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.

일차진료의  
유인방안으로서  
등록환자에 대한  
환자당 정액제와  
행위별 수가제를  
병행하도록 하는  
등 일차진료의  
서비스에 대한  
지불방식을  
개선하여야 한다.

[제3안]

- 의과대학 졸업후 2년간의 기초수련과정을 이수하고 개업을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부여함.
- 향후 전문의 경로를 밟고자 하는 경우, 소정의 허가절차를 거쳐 개업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2년간의 수련과정중 전문의와 관련된 선택과목을 택할 수 있게 함.
- 개업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, 전문과목별로 2~5년간의 전문의 수련을 받도록 함.
- 일차진료의는 개원 전문의중 가정의학, 일반내과, 일반소아과, 결핵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함.

[제4안]

-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보완 개편을 전제로 의과대학 4학년 과정중 임상실습(약 6개월)과 의과대학 졸업후 수련과정(약 1년간)을 이수한 후 개업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자를 일차진료의라 칭함.
-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과정은 일차진료의 면허를 득한 후 소정기간의 수련과정을 이수토록 함.

다. 일차진료의 유인방안

- 등록환자에 대한 환자당 정액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일차진료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방식을 개선함.
- 직장단위의 주치의 등록제 안도 검토함(예: 대한항공 승무원).
- 의료보험수가를 재조정함(예: 등록된 주치의의 의료를 이용시 지불비용 차등화).
- 개원 전문의의 재교육을 통해 일차진료의로의 전환을 유도함.

라. 일차진료의 서비스 질 강화방안

- 7년 주기의 자격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차진료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일차진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킴.
- 일차진료의 지도전문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 지도전문의 수 1명당 6명의 전공의 책정 기준인원을 완화함.

의사 국가시험  
제도의 합리적  
개편 및 전문의의  
질적 적합성을  
유지하기 위하여  
전문의 자격  
재심사제도를  
도입하는 등  
전문의 관련  
제도의 개선이  
이루어져야 한다.

2. 의사 국가시험제도의 합리적 개편

- 현재 의과대학 졸업직후 단 1회로 되어 있는 의사국가시험을 이 단계화하여 최종 의사면허 취득시기를 조정함.
- 제1차, 2차 의사국가시험은 『의료개혁위원회』에서 건의한 바 있는 『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』에서 시행함.

3. 전문의 관련제도의 개선

- 국가의 의료인력과 전문의 수급관련 기본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구인 가칭 『전문의제도관리기구』를 신설함.
- 전문의의 질적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재심사제도를 도입함.